홀로스 평생교육원
심층 의식으로 부터 깊은 지혜를 이끌어 내는 통찰력게임

• 발행 : 이원규 • 편집: 이한솔, 이혜정
• 주소 : 서울 사무실 /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68 (청룡동) 혜남빌딩 4층
함양 연수원 / 경남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785번지
• Tel : 02-747-2261 • Fax : 02-747-3642 • E-mail : lhj40626@naver.com

통찰력게임 소식지

2017년 8월 (제4호)

권두언 (卷頭言)

느낌과 무의식적 원형(原型)

통찰은 느낌을 통해 드러나지만 느낌 이전의 세계에 열려있어야 이 지혜가 드러난다. 느낌 이전이란 무의식적 원형이다. 예를 들어 '신발'은 '이름'이다. 그것 아래 신발의 '느낌'이 있다. 그 느낌 너머에 신발의 '무의식적 원형'이 있고 그것은 직관적으로 다가온다. 거기서 신발은 더 이상 단순한 신발이 아니다. 신발은 배(舟)이고 탈것이며, 감싸 안는 것이고 따뜻하며, 그녀이고 아름다움이다. 신발은 노아의 방주이고 우주선이며 계곡이고 아궁이이다.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신발의 '무의식적 원형'이다.

'느낌'은, 표면적이고 분열된 이름과 생각의 세계를, '무의식적 원형'과 연결시켜주어 지혜로 통하게 하는 중간 고리이다. 이 원형이 특정한 시공간이라는 상황을 만나 구체적인 하나의 상징으로 드러나면 느낌을 통해 우리에게 심층의 지혜를 전달해주는 것이다. 많은 의식적 상황과 사물의 '느낌'은 그 아래 그것이 분화되어 나오기 전의 심층의식적 원형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통찰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생명력 카드와 어울리기, 깨어있기, 위기 카드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통찰력 게임의 토대는 무의식적 원형이라는 **스칼라**(1)이며, 그것이 빚어내는 수천만가지의 상징적 느낌은 주제 해결을 향한 구체적인 **벡터**(2)이다. 우리가 주제를 품을 때 내면에서 발견되는 느낌은 바로 이 원형이 펼쳐내는 천만가지 상(相)에서 축소되어 한가지로 압축된 표현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실함이라는 에너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원규 두손

주) 1. 벡터(vector) : 힘과 방향을 가진 에너지, 현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벡터이다.
2. 스칼라(scalar) : 힘만 있고 방향이 없는 에너지, 따라서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목차〉

다가오는 강좌 소개 / 2 p
딜러, 마스터 동정(動靜) / 3 p
통찰력게임 참가자 후기 / 4~5 p
통찰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첫 2초의 힘, 블링크> / 6~7 p
통찰노트, <당신의 꿈의 직장은? > / 8~9 p
8월 통찰력게임 딜러모임 이야기 / 10 p

다가오는 강좌 소개



● 8월, 제 5차 통찰력여행, 함께해요!

<통찰력여행>은 신청자 분들과 함께(선착순 3명) 통찰력 미니게임을 진행합니다. 다른 누구의 목소리가 아닌, 오직 '스스로의 내면의 목소리'에 온전히 귀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떠세요?
(최대 정원이 다 차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 일시: 2017년 8월 27일(일) 오후 2시 ~ 오후 6시
· 장소: 서울 (장소는 추후 공지)
더 알아보기) https://goo.gl/oKW8rL



● 제 13차 통찰력게임 딜러교육

이 과정은 통찰력 시범게임을 직접 진행하고 키트 판매도 할 수 있는 '게임 안내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재수강은 무료이며(자기변형 게임 딜러도 가능), 미니게임 안내자 교육도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017년 8월 26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 참가비: 무료 (단, 키트 5개 이상 신규 구입자에 한함, 35만원)
PC버전) https://goo.gl/v3jHnK
모바일버전) https://goo.gl/ZxjYu8

● 제 17차 통찰력게임 워크숍

<통찰력게임>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미세하게 올라오는 무의식적 신호를 알아채고 통찰로 이어지게 하며, 그 통찰을 실현시킬 힘을 얻게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감정적 이슈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시: 2017년 8월 26일(토) 오후 2시 ~ 8월 27일(일) 5시
· 장소: 함양연수원
PC버전) https://goo.gl/X8v9pj
모바일버전) https://goo.gl/Qg4IVT



● 제 3차 통찰력게임 딜러모임

<통찰력 미니게임 안내자교육>을 받은 딜러분들과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합니다. 딜러교육 이후 통찰력게임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통찰력게임을 안내도 하고 참여도 하며 실전 연습을 하는 모임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

· 일시: 2017년 8월 27일(일) 오후 12시 ~ 6시
· 장소: 서울 강의장
· 참가비: 회비 1만원 (우리 / 258-114367-12-001 / 이선영)
PC버전) https://goo.gl/Cfu54z
모바일버전) https://goo.gl/3UXYoX



통찰력게임 동정(動靜)



● 제 12차 통찰력게임 마스터교육이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동안 함양연수원에서 통찰력게임 마스터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의 통찰력게임 딜러이신 물방울님, 나무님, 챨리님, 희소님 4분께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마스터교육에 참여하셨던 챨리님과 희소님의 생생한 영상 후기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영상 후기 보러가기) https://goo.gl/8KwxP7

● 제 2차 통찰력 미니게임 안내자교육이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22일 토요일, 통찰력 미니게임 안내자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의장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 이번에도 3분씩 조를 이루어서 서로에게 미니게임을 안내하고 참여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통찰력게임 딜러모임, 그 두 번째 만남을...!

2017년 7월 23일 일요일, 통찰력게임 딜러분들과의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보다 통찰력게임 및 자기변형게임 딜러 분들의 참여율이 2배 가량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함께 모여 통찰력 미니게임에 대해 서로 안내도 하고 참여도 하면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셨다고 합니다. ^^



● 7월, 통찰력 여행이 진행되었습니다 ^^

2017년 7월 23일 일요일, 통찰력게임 마스터 자형님의 안내로 제 4차 통찰력 여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자공님과 하루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
4시간 동안의 통찰력 미니게임 과정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지혜와 통찰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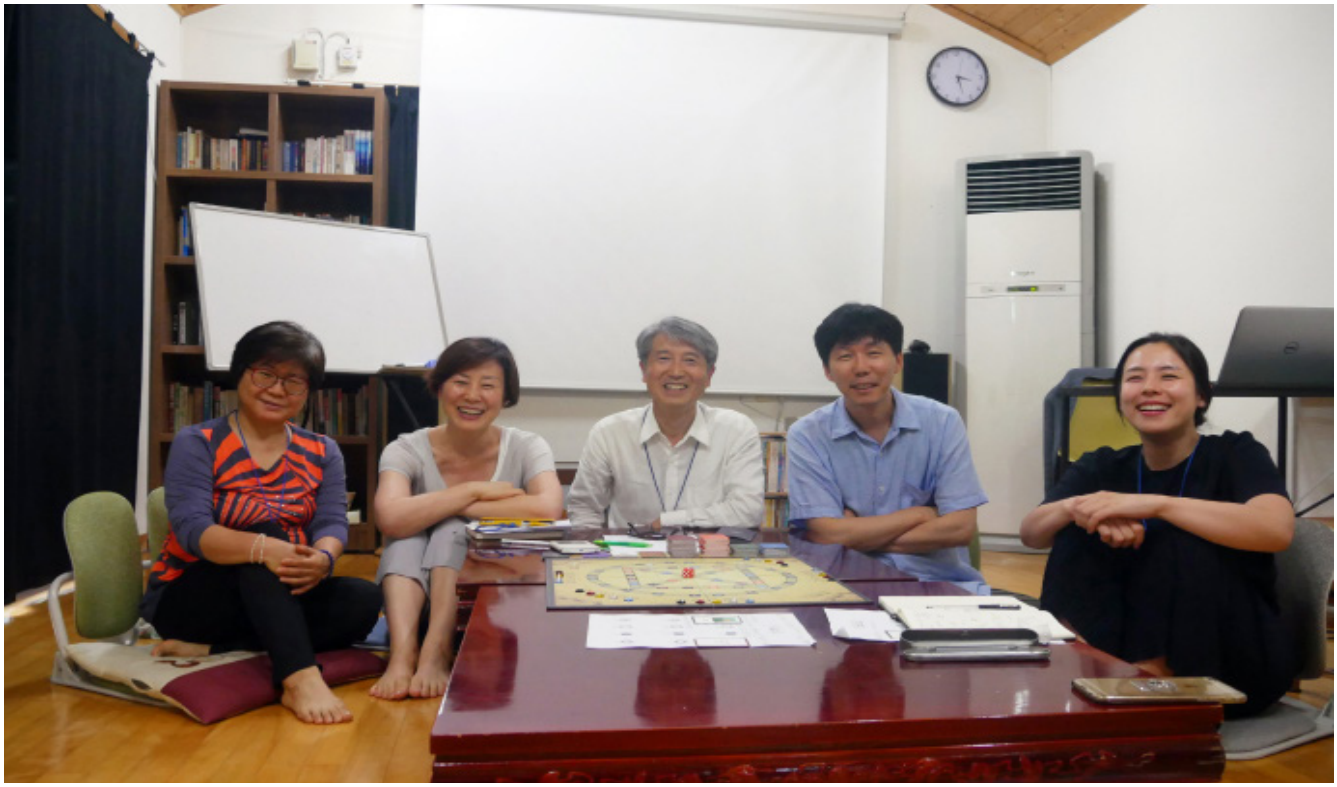
후기 보러가기) https://goo.gl/im4o5a



통찰력게임 마스터교육 후기

심층의식을 통해 더욱 깊어져가는 '나'를 발견하다.

심리 코칭 / 희소님



통찰력게임 마스터교육을 통해 새롭게 경험하거나 발견한 통찰이 있으세요?
첫 번째로 게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내면 아주 깊이 있는 심층 무의식에 대한 신뢰, 이것을 교육기간 3일 동안 경험한 것 같아요. 슬라이드 내용도 변하고 문장도 변하지만, 강사 두 분께서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계속 전하는 느낌이었어요. 두 분 다 결국 심층의식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다양한 지식을 동반해서 저희에게 전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감탄했습니다. 게임도구나 슬라이드 내용은 그냥 거들 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심층의식에 대한 깊은 신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 개인적 성장 측면에 있어서는 한 껍질 벗겨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점점 비워지고 있는 시기거든요. 책 쓰는 것, 논문 쓰는 것, 학력을 마치는 것 등 제 삶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정리해가면서 가벼워지고 있어요. 아까 피드백도, 진지한 것보다는 맑고 밝고 가벼운 단계로 갔던 이유가 비워지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생겨요. 맑고 밝고 가벼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올 양陽의 사이클은 뭘까? 다시 어떤 것들을 채우게 될까, 기대돼요. 계속 날아가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비웠기 때문에 다시 채워지는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강렬하게 느낀 것이 있어요. 제가 사실 커리어로 보면 딱히 전문코치로서 성장할 만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실력을 쌓을 만한 겨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깊어졌을까 생각해봤더니 그동안 자기변형게임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깊어졌던 것이었어요. 이것을 제게 적용해서, 이제 돌아가서 통찰력게임을 계속하고 연구하다보면 심층무의식에 대해 신뢰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번 변형을 겪을 기회가 오겠다는 설렘이 있어요. 그런 설렘과 열정과 순복과 의지력이 채워져서 또 다른 변형을 경험한 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합니다.
심층의식을 통해 제 자신이 더욱 더 깊어졌던 2박 3일이었습니다. 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통찰력게임 마스터교육 후기

'감지'를 통해 진정한 경청을 느꼈던 시간.

라이프 코칭 / 챨리님



통찰력게임 마스터교육을 통해 새롭게 경험하거나 발견한 통찰이 있으세요?

저는 통찰력게임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이 게임을 만든 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역시나 제 생각과 기대했던 것만큼 통찰력게임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의 이해를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앞으로 제가 통찰력게임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드러난 부분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간 내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고객의 말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고객의 말을 신뢰하는 마음가짐이 생긴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감지 교육이 가장 많이 와 닿았어요. 고객을 좀 더 확장되게 볼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고객의 말에만 포커스가 되었다면 이제는 말 옆, 뒤, 위에 있는 그 마음까지도 같이 느끼고, 그럴 때 편안함을 느끼겠다, 싶어요. 더 넓게 보는데도 말에 더 경청하게 된다는 것이 코치로서 되게 반가웠어요. 코치로서의 고민이 경청을 좀 더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였는데 감지교육이 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통찰력게임과 비슷한 자기변형게임을 했었을 때에는 하나의 개인으로 고객을 봤었는데 통찰력게임 안에 있는 감지 교육을 통해서, 참가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존재감을 느꼈던 것이 충만한 마음으로 게임에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예전에 자기변형게임을 할 때에는 체력이 많이 고갈됐는데, 감지라는 이런 기법이 있었구나 싶었고, 감지를 통해 애쓰지 않아도 잘 되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마디 해 주세요 ^^

외부에서 “홀로스는 어떤 곳이야?”라고 물어오면 그동안에는 ‘통찰력게임 같은 것을 해’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가 봐! 거기에 새로운 게 있어. 거기만의 색깔이 있는데 가봐야 알아.”라고 추천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3일간의 경험은 코치로서의 제 삶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코칭할 때 고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로서 활용하면 뿌듯할 것 같고, 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찰은 어떻게 일어날까요?(4)

말콤 글래드웰



첫 2초의 힘, 블링크 (blink)

말콤 글래드웰 지음

트럼본 연주자 아비 코난트는 오픈무대에서 불합격을 받았지만, 장막뒤에서 오디션을 볼 때는 연주가 시작되자 얼마 안되어 심사위원으로부터 즉각 합격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들의 눈과 생각에 비친 '여자 연주자'는 트럼본을 제대로 연주할 수 없다는 '의식적 편견'에 영향을 받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지만', 의식에 영향받지 않은 무의식적 귀는 그녀의 연주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의식'에 눌린 우리의 무의식적 감식력이 진정한 평가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편집자 주)

순수한 2초를 포착하라!

클래식 음악의 세계, 특히 유럽 본고장은 극히 최근까지도 백인 남자들의 영역이었다. 여자는 남자만큼 연주할 수 없다는 믿음이 지배했다. 힘도 약하고, 자세도 안 돼 있고, 특정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탄력도 부족하다는 거였다. 입술도 다르고, 폐도 튼튼하지 못하며, 손도 더 작았다. 그것은 편견처럼 보이지 않았다. 사실인 듯했다. 지휘자와 음악감독과 마이스트로가 오디션을 할 때면 언제나 남자 소리가 여자보다 나은 것처럼 들렸다. 오디션이 어떻게 행해지는지 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도 없었다. 음악 전문가를 음악 전문가로 만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순간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연주의 질을 평가할 만한 능력을 지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몇십 년 사이, 클래식 음악계는 혁명을 겪었다. 지난 30년 사이 블라인드 오디션이 일상화되면서 미국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에 여자 단원 수가 다섯 배나 늘었다.

아비 코난트는 장막 오디션에 지원했다. 순서는 16번이었다. 코난트는 독일에서 오디션 단골 작품인 페르디난드 다비드의 트롬본 협주곡을 연주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음을 실수했다(G에서 째지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속으로 "끝났어." 하고 생각하고는 무대 뒤에서 짐을 꾸려 집에 갈 채비를 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생각은 코난트와 달랐다. 그들은 연주에 넋을 잃었다. 오디션은 얇게 조각내어 관찰하기의 전형적인 순간이다. 노련한 클래식 음악가들은 연주자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거의 순간적으로–어떤 경우에는 처음 몇 마디만으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첫 음 하나만으로–알 수 있다고 한다. 코난트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녀가 오디션 룸에서 나간 뒤, 필하모니의 음악감독 세르주 켈리비다체가 소리쳤다.
"바로 저 사람이야!"
위원회는 오디션 차례를 기다리던 나머지 17명을 곧바로 집으로 돌려보냈다. 어떤 사람이 무대 뒤로 찾아와 코난트를 찾았다. 그녀가 오디션 룸으로 되돌아가 막 앞으로 걸어 나가자 바이에른 특유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게 뭐야? 젠장! 저런! 맙소사!"
그들은 코난트 '씨'를 예상했던 것이다.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난데없는 코난트 '양'이었다. (심사위원들은 남자 연주자라고 생각했지만 여자임을 보자 놀라고 탄식한 것이다: 편집자 주)

교향악단에 여자가 참여하게 된 것은 사소한 변화가 아니다. 기회가 차단되었던 한 집단에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첫인상을 오디션의 본질에 맞게 교정함으로써—순전히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됨으로써—오케스트라가 더욱 실력 있는 음악가를 채용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곧 더 좋은 음악으로 이어진다. 그렇다. 우리가 더 좋은 음악을 듣게 된 것은 클래식 음악 사업을 전면 재고하거나 새로운 콘서트홀을 짓거나 수백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쏟아 부어서가 아니다. **지극히 섬세한 일인 오디션의 처음 2초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가능해졌다.**



클래식 음악의 혁명에는 커다란 교훈이 하나 있다. 왜 그렇게 오랜기간 동안 지휘자들은 자신들의 순간 판단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대부분 자신의 '신속한 인식 능력'을 조심성 없이 다루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첫인상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 그래서 그것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

'신속한 인식 능력'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 무의식의 산물을 변화시키거나 훼손하는 미묘한 영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의미다. 음악을 평가하는 일은 매우 단순한 작업인 듯하다. 그러나 콜라를 홀짝이거나 의자를 평가하거나 쨈을 맛보는 것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장막이 없었다면 아비 코난트는 한 음절도 연주하기 전에 퇴장당했을 것이다.

오케스트라들은 자신들의 선입견과 대면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나서서 문제를 풀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의 두 번째 교훈이다. **우리는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자주 묵인한다.** 우리는 무의식에서 표면으로 솟아오르는 무언가를 우리 스스로 조절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충분하고 신속한 인식이 일어나는 환경만 조절하면 신속한 인식도 조절할 수 있다.** 전쟁을 하거나 응급실에 사람을 배치하거나 거리의 치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줄리 랜즈먼이 메트로폴리탄의 제1프렌치호른 연주자 오디션에 지원했을 무렵은 장막 오디션 초기였다. 당시 오케스트라의 브라스 섹션에는 여자가 전혀 없었다. 여자가 남자만큼 호른을 잘 연주할 수 없다는 것을 만인이 다 '알았기'때문이다. 그러나 랜즈먼은 나와서 자리를 잡고 연주했다.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게. 그녀는 말한다. "마지막 라운드가 되자 그들이 말해주기 전에 이미 내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마지막 작품을 연주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맨 마지막의 높은 C를 아주 오랫동안 끌었는데 그들 마음속에 남아 있는 의심을 남김없이 걷어내기 위해서였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웃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그건 의무사항이 아니었거든요." 합격자를 발표한 뒤 그녀가 막을 젖히고 걸어 나오는 순간 장내에 숨넘어가는 소리가 가득했다. 코난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여성 호른 연주자가 희귀했던 것이다. 그들이 놀란 것은 대담하게 늘여 뺀 높은 C, 즉 남자에게서만 기대 할 수 있는 그 소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일전에 그녀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랜즈먼은 전에 메트로폴리탄에서 대역으로 연주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오로지 귀로 그녀의 연주를 듣기 전까지는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연주자인지 몰랐다. 장막이 순수한 '순간 포착'의 시간을 만들어냈을 때, 작은 기적이 일어난 셈이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2초를 신중하게 살필 때, 언제나 가능했던 작은 기적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진면목을 본 것이다.**

책, 블링크(blink) p.180~183 中

통찰 노트(Insight Note): 세상의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당신의 꿈의 직장은 어떤 모습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이른바 '꿈의 직장(Dream Company)'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런던비즈니스스쿨의 조직행동 명예교수인 롭 고피(Rob Goffee)와 IE비즈니스스쿨 객원교수 가레스 존스(Gareth Jones)는 이에 대한 3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하버드비즈니스 리뷰> 2013년 5월호 'Creating the Best Workplace on Earth'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수백 명의 경영자들로부터 얻은 이상적인 조직의 모습을 토대로 꿈의 직장에 대한 6가지 원칙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간략히 얘기하자면, 꿈의 직장이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차이점을 키워주고, 정보를 억압하거나 조작하지 않으며, 단순히 직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직원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대변하고, 업무 자체가 본질적으로 보람되며, 쓸데없는 규칙이 없는 직장입니다. 아래에 그 핵심 내용과 '꿈의 직장 자가 진단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꿈의 직장 자가 진단표 (The Dream Company Diagnostic)

(아래의 문항을 읽어보며 내게 얼마나 해당되는지 점검해보세요.)

[진정한 내 자신이 되고 싶어요.]

▣ 나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같은 모습이다. ( )
▣ 진정한 내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진다. ( )
▣ 우리는 모두 자신이 갖고 있는 남다른 면을 자유롭게 드러내 보일 수 있다. ( )
▣ 자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근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 )
▣ 조직 차원에서 열정을 적극 권장한다. 열정이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그렇다. ( )
▣ 이곳과 어울리는 인재 유형이 한 가지로 국한되지 않는다. ( )

[출처] '꿈의 직장(Dream Company)'이란? | 작성자 솔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게 이야기해 주세요.]

▣ 직원들은 전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
▣ 정보가 조작되지 않는다. ( )
▣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충성심이 없는 사람으로 매도되지 않는다. ( )
▣ 나의 상사인 관리자는 기꺼이 나쁜 소식에 귀를 기울인다. ( )
▣ 최고경영자들이 기꺼이 나쁜 소식에 귀를 기울인다. ( )
▣ 우리는 다양한 의사소통 경로를 활용할 수 있다. ( )
▣ 의견을 남긴 후 그 의견을 내가 남겼다고 인정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 )

[나의 강점을 찾아내고 발전시켜 주세요.]

▣ 내게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
▣ 모든 직원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
▣ 최고의 인재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자 한다. ( )
▣ 성과가 가장 저조한 직원들 역시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 )
▣ 보상이 조직 내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 ( )
▣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추가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위한 가치를 생성한다. ( )

[여기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어요.]

▣ 나는 우리 회사가 무엇을 대변하는지 잘 알고 있다. ( )
▣ 나는 우리 회사가 대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 )
▣ 나는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직무를 뛰어넘고자 한다. ( )
▣ 이윤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목표가 아니다. ( )
▣ 나는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이뤄내고 있다. ( )
▣ 나는 사람들에게 내 직장이 어디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 )

[내 일이 의미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 내가 하는 일은 내게 의미가 있다. ( )
▣ 내가 맡고 있는 직무가 이치에 맞게 느껴진다. ( )
▣ 내가 하는 일은 내게 에너지와 기쁨을 준다. ( )
▣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일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잘 알고 있다. ( )
▣ 모든 사람의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 )
▣ 직장에서 우리는 공통의 목적을 공유한다. ( )

[쓸데없는 규칙으로 나를 옭아매지 마세요.]

▣ 우리는 모든 것을 간결하게 유지한다. ( )
▣ 규칙은 명확하며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 )
▣ 나는 규칙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 )
▣ 무엇을 위한 규칙인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 )
▣ 하나의 조직으로서 우리는 불필요한 요식을 거부한다. ( )
▣ 권한이 존중된다. ( )

통찰력게임 활동 모습 (4)



글로는 배울 수 없는 경험들을 함께 나눴던 시간이었어요!"

2017년 6월, 통찰력 미니게임 안내자교육을 이수하신 딜러분들과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모임의 열기를 이어 받아 이번 7월 모임에서는 통찰력 미니게임의 전반적인 절차를 숙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참가자와 안내자가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 받는 시간을 통해 배운 경험들을 게임 tip으로 정리하여 다른 그룹에게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찰력 미니게임 자체에서도 울고 웃으며 통찰이 있었고 이후에도 피드백을 통해 글로는 배울 수 없는 경험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참가자와 시작해야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의 조건과, 안내자의 자세, 그리고 주제 이미지를 선정하는 노하우, 참가자와 안내자의 호흡과 템포를 조율하는 법, 그리고 통찰력 마스터는 어떤 단계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5단계의 구분, 통찰력 게임 시작 전 참가자와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 나눔 등 지면에는 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의 열기로 한 회 한 회의 밀도가 높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통찰력 게임을 배우고 익힐 시간에 갈증이 있었던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끝)